

↑ 코스피	↓ 코스닥
2753.16 (+5.30)	891.59 (-20.86)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333 (+0.042)	1352.10 (+2.70)

금값 최고가 행진
금리인하 예고에
매력도 상승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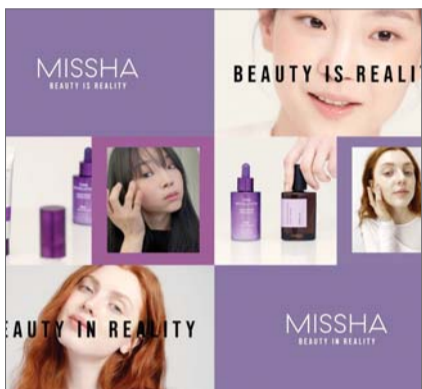


인종 초월 다양성 강조 글로벌 시장 '새 바람'

K뷰티, 브랜드 지형 변화

중소 브랜드 약진

코로나19가 끝나고 외출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바람을 타고 뷰티 업계에 '작지만 알찬' 중소·중견기업들도 약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는 '한류열풍'을 타고 'K뷰티'의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 뷰티'의 만능 격인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뿐 아니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K뷰티'의 주역들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미샤가 글로벌 캠페인 '뷰티 인 리얼리티'를 전개해 아시아 넘어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에이블씨엔씨

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매출은 6분기 연속 상승, 영업이익은 8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이뤘다.

에이블씨엔씨는 이같은 호실적에는 해외 매출 상승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의 2023년 화장품 사업부문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에 이른다. 이 비중은 2021년 49.91%, 2022년 52.6%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에이블씨엔씨는 '미샤'를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구축해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에이블씨엔씨 주력 브랜드인 미샤는 할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 향상을 꾀하며 글로벌 캠페인 '뷰티 이즈 리얼리티'를 선보였다. 미샤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아름다움은 특별히 꾸며진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결과, 미샤는 지난해 '비타씨 앰플'과 '개똥썩 앰플'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39%, 2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미샤는 '뷰티 인 리얼리티'를 통해 일상 속 아름다움과 함께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다양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도 트와이스 다현과 함께 전통 뷰티 강국인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어퓨 '워터락 피니쉬'의 경우 일본 시장에 없던 신개념 액상 파우더 제품이다. 출시 한 달 만에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고, 6개월 누적 판매량은 11만 개를 넘어서는 등 일본 현지에서 K뷰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클리오의 지난해 사상 최대 연간 매출 실적을 올렸다. 클리오의 2023년 매출은 3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美, '韓 망사용료 부과' 또 지적 이중과금 논란... 정부 정책적으로 풀어야

글로벌 CP-국내 ISP, 갈등 지속
USTR "韓 통신3사 과점만 심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반(反)경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망사용료 이중과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민간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4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

다"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자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과점을 심화시키는 반경쟁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국내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트래픽(Traffic)을 유발하는 트위치·유튜브·넷플릭스 등 CP가 SK브로드밴드 등 ISP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다. 구글이 전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넷플릭스(5.5%), 메타(4.3%), 네이버(1.7%), 카카오(1.1%) 등 타 CP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특히 1년새 구글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포인트(p) 늘어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련 비중은 각각 0.4%p와 0.1%p씩 줄고 있어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트래픽을 사용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에 ISP들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폭증이 네트워크 증설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무료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면에 계속)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빠른행동·벽 허물기로 민생과제 신속 추진”

尹,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3개월 간 약 240개 과제 도출
지방-중앙정부 유기적 협업
수도권 교통·농불학교 등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24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도출된 약 240의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과제 해결의 키워드로 '빠르게 행동하기'와 '부처 간 벽 허물기'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민생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에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 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으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으로 민생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고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원희룡, TV토론 비공개 전환에 "이재명 측 반발로 결정" /사진 뉴시스
- ▲ 홍준표,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 아니다"… 연일 한동훈 겨냥

- ▲ 정봉주 "북한 목함 지뢰 피해 응사들에게 사과… 씻을 수 없는 죄"
- ▲ 민주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윤, 한반도 평화 망각"



- ▲ 파란색 점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여사와 울산 찾아 /사진 뉴시스
- ▲ 대장동 공판 출석한 이재명 "선거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안타까워"

오가노이드 세계 전문가 ‘한곳에’… 현황·미래비전 등 논의

26일 ‘오가노이드 치료제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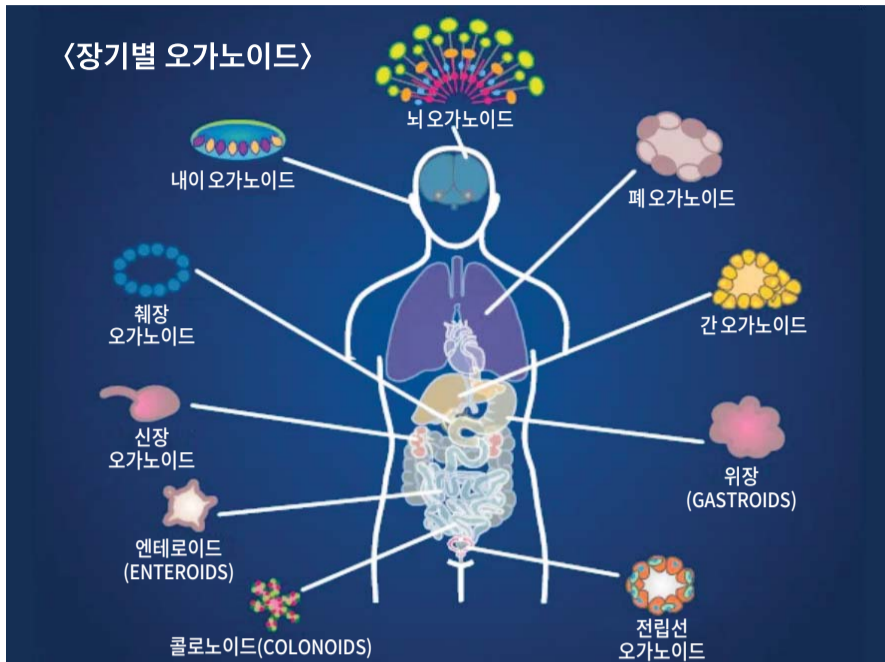
2023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국내외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갖는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미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을 개최한다. 충청북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의 개회사와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다.

첫 세션은 전 세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연구 현황을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세션에는 전 세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전문가들이 대거 강연자로 참석해 눈길을 끈다.

우선 로버트 콕스(Robert Coppes)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대학의료 센터 교수가 참석한다. 로버트 교수 연구팀은 침샘 조직으로부터 침샘 오가



CARM, 서울 KRX한국거래소 개최 네덜란드·일본 교수 등 강연 나서 대장암 임상시험 성공 경험 등 공유

韓 전문가 유종만·손미영 등 강연 국내 재생치료제 현황·전망 논의

노이드를 제작, 방사선으로 인한 침샘 기능 저하 마우스에 이식해 침샘분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 침샘 오가노이드는 현재 인체 임상이 진행 중이다.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 의과치과대학

(TMDU) 교수는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다. 류이치 교수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 지난해 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암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다음 날 퇴원했다. 오카모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 첫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임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국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현황과 전망을 공유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장 재생치

료제의 인체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는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줄기세포융합센터장이 ‘인간 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장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손 센터장은 지난 2018년 장 오가노이드를 실제 성인의 장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키워내는 ‘성숙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오가노이드 전문가다. 생명연이 만들어낸 장 오가노이드는 전 세계에서 성인의 실제 장기와 가장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재생치료제 기술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첫 강연은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이사가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의 주제로 맡는다. 미리어드 생명과학은 제약·바이오 특화 전략자문사로,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출범 유망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을 기획, 발굴하고 있다. 이어 임승원 전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기업공개(IP

O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임 전 부회장은 한국거래소 재직 당시 수백 개 바이오 기업의 IPO를 담당했던 전문가다.

마지막 강연은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이 맡는다. 그는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을 주제로 기술특례 상장에 필요한 조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이득주 회장은 “오가노이드 기술은 향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포럼이 오가노이드 분야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출범한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한국 재생의료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첨단재생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유관 섹터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며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주소정보산업 등 국가통계 6종 개편 나서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 국가정책 필요 통계에 적시제공

국가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총 6종의 통계가 올해 개선 작업을 거쳐게 됐다. 필수요 지역 현황과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등이 대상이다.

통계청은 2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통계개발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종의 통계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산업 현황(보건복지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소정보산업 통계(행정안전부) ▲해양범죄통계(해양경찰청) ▲필수요지역현황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연안어업실태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다.

국가통계개발사업은 국가 주요정책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예산, 통계 분야 전문기술 등을 지원해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통계 품질을 개선한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과 과기정통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통계청 국정과제 지원사업인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이다. 해당 부처에서 개발·개선을 요청해 올해 사업대상 과제로 뽑혔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은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 구현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한다. 해당 부처에 기존 통계는 정책활용안내서를,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는 개발·개선

기획서를 제공하는 등 총 120개 국정과제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60개씩 분석하고 있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가 개발·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가 국가통계개발사업으로 신청하면 해당 통계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고품질의 통계를 제때 제공해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가 성공적으로 개발·개선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초브랜드 매출비중 16%→22%로 성장

>> 1면 ‘K뷰티, 브랜드 지형변화’서 계속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 증가해 338억원이다. 이 중 해외 매출은 1463억원이다.

최근 3년간의 클리오 해외 매출을 살펴보면 2021년 1296억원, 2022년 1345억원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 색조 브랜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기

초 브랜드의 비중이 2022년 16%에서 22%로 늘었다. 브랜드별로 구분하면 ‘구달’의 비중은 2022년 11%에서 18%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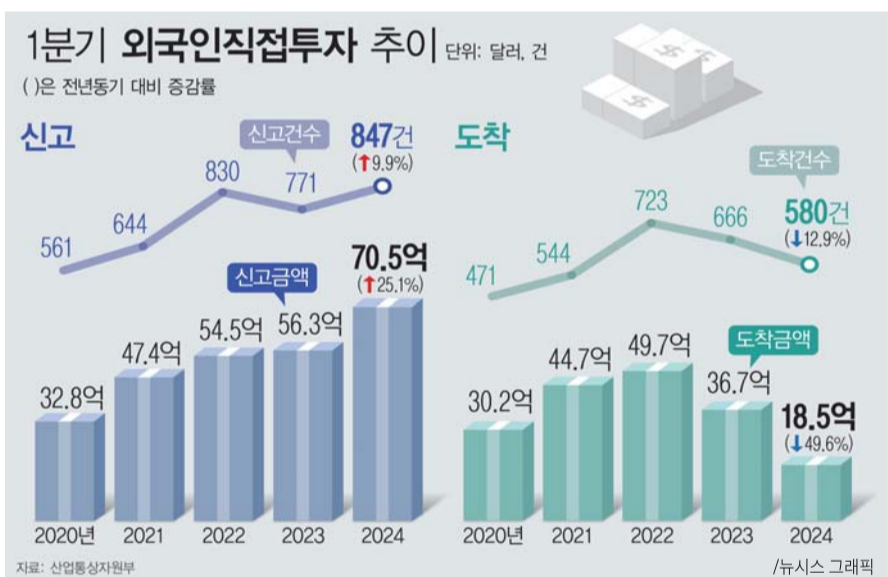
무엇보다 구달은 해외 시장에서도 기초 브랜드와 함께 고성장을 이뤘다. 미국 시장에서 2023년 매출은 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함과 동시에 구달 ‘청굴 비타C 세럼’이 판매 호조를 보였다.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구달 청굴 비타C 제품

군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 클리오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외 시장에서 기초 제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클리오는 구달 제품 확대, 저자극 더마 브랜드 더마토리 육성 등 브랜드 다각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현지 맞춤형 제품이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 공략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외국인직접투자 70.5억 달러… 25% 증가

산업부, 역대 1분기 중 최고 기록

올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 달러)에 이어 올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56.3억 달러)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연간 FDI 중 1분기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 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호실적

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FDI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9.2% 대폭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 달러, +49.2%), 항공(3.4억 달러, +69.5%) 등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 달러, +34.3%) 등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7.2억 달러), 유럽연합(5.7억 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美 금리인하 예고에 금 매력도 ↑ 온스당 2300달러 전망 ‘지배적’

中 수요, 지정학 리스크 등 영향
지난 1일 장중 2300달러선 육박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이어질 것”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 할 수 있겠지만 연말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6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8.70달러(0.84%) 상승한 온스당 2257.1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전날 기록한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면서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금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7.7% 상승했고, 3월 상승세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금 가격은 지난해 약 13% 급등했고, 올해 들어 9% 이상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금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장(9만8470원)보다 1.39% 오른 9만98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에서 올해 3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리인하가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금리 인하로 채권 등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금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 장기화와 중국의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가파른 조정으로 인해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서 금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금 소매 수요는 지난 1월 271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에도 127톤으로 장기 평균(118톤)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량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도 금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보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하자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치열하게 금을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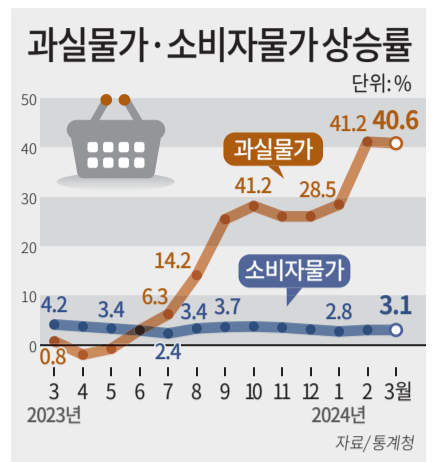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 고려시 금 가격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며 “경기 둔화와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 미 달러 약세 가능성 등 금 가격에 우호적인 매크로(거리경제) 환경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연말까지 금값이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올해 평균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090달러에서 218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3%대... 신선과실 40% ‘폭등’

통계청 3월 소비자 물가 동향
최상목 “농축산물 할인지원 강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 상승률이 90%에 근접하는 등 농산물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달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7월(2.4%)과 올해 1월(2.8%)을 제외하고 9개월치 중 7개월치가 3% 선을 넘게 됐다.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 2월(3.1%), 3월(3.1%)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1년 전보다 1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전년 대비 무려 40.9% 올라 2월(41.2%)에 이어 2개월째 4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농축산물은 11.7% 오르며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만 따지면 20.5%에 달했다.

특히 사과·배 가격이 각각 88.2%, 87.8% 급등했다. 이는 각각의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석유류 값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1.2% 상승했다. 또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개인서비스 물가는 3.1% 올랐

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8%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 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 9000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물가의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달부터 농산물 물가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가 3월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전자, 실적개선 기대감... 종가 8.5만 마감

3년만에 ‘10만전자’ 사정권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

2일 삼성전자 주가가 딱 3년만에 8만 5000원 고지에 올라 ‘10만전자’ 사정권에 들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66%(3000원) 상승한 8만 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18조원 가량 늘어나며 장마감 기준 507조 43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이후 약 3년만에 500조원을 넘어 서며 코스피 시총(2248조 784억원) 대비 22.57%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5일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72조 5453억원,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7.61% 증가한 5조 17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반도체 훈풍이 불어오는 상황이 이



여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주가를 부양할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03% 오른 10만 2000원으로 상향해 발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0만 7000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분기 매출은 5개 분기 만에 7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돼 현대차를 제치고 1위 자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감소 효과

가 본격화하면서 D램과 낸드 등의 가격이 올라 실적 개선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흑자로 돌아선 디램과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낸드와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해 D S부문 실적에 플러스가 될 전망”이라며 “메모리 업사이클의 가치를 반영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며 “비메모리가 여전히 실적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적자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2023년 파운드리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최대 수주 달성 및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9% 증가한 74조 1000억원,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5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해 망사용료 개정안 통과 ‘0전’

» 1면 ‘美, 韓 망사용료...’서 계속

반면 CP들은 국내 국내 ISP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메인 서버가 있는 미국 등 자국 ISP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데다 해저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투자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망을 구축한 회사가 없어 미국 기업이 설치한 해저케이블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은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망 사용료 분쟁을 이어왔다. 넷플릭스의 트래픽 폭증으로 해저케이블 설치 등 큰 비용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두 회사가 협의하면서 분쟁

은 일단락됐다. 이와함께 미국 아마존이 소유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지난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담을 문제로 꼽으며 국내 시장서 철수했다.

이처럼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사용료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내 CP와 글로벌 CP간의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국회 과거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망 사용료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경찰 고위직 출신, 일 잘할 것” vs “10년 지역 기반 있다”

〈류삼영 민주당 후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서울 동작을

野 정동영 “정의감 갖춘 인물” 지원
與 “동작 승리, 전국 판세 영향줄 것”
보수 텃밭 서초·강남, 정치권 주목
野 “송파 균열 뻗치면 이번 가능성 ↑”

서울 동작, 서초, 강남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은 지역이다. 서초와 강남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 성향 지지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좀 다르다. 동작구의 경우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고, 동작을 역시 민주당세는 강하지만 보수정당 후보도 종종 당선됐다.

22대 총선이 9일 남은 지난 1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이 벌어지는 서울 동작구의 이수역과 남성역 일대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이 있고, 주요 유세가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양 후보 캠프는 모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나경원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8381표(7.12%포인트) 차이로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나 후보는 2014년 동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고, 20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왔다. 즉 10년간 해당 지역을 닦아온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나 후보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조치하고,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다. 그러나 류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에서 ‘발달이’를 해온 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동작은 넘어갈 수도 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22대 총선이 9일 남은 지난 1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이 벌어지는 서울 동작구의 이수역과 남성역 일대를 찾았다. 사진은 이날 이수역 앞 교차로에 나경원 국민의힘·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서예진 기자

당도 이를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조치하고,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다. 그러나 류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에서 ‘발달이’를 해온 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동작은 넘어갈 수도 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22대 총선의 구도가 ‘정권심판’으로 잡히면서 동작을에도 정권심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자체조사(3월27~28일 조사, 무선(91%)·유선(9%)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는 43.1%, 류삼영 후보는 48.8%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1일 발표된 지지율 조사(3월 4~5일 조사, 무선(100%)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44.2%, 류 후보가 34.7%였으니 역전을 한 셈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여당 소속 수도권 후보들은 최근 정권심판 구도에 더해, 대통령실 발(發) 악재로 인해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나 후보 측 역시 같은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담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나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시 격차를 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동작에서 이기는 것이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격자’인 류삼영 후보 측은 “현재는 박빙 열세”라고 진단했다. 나경원 후보가 오랜 시간 지역을 닦아온 것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류 후보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앞서서 것이 나

왔다고 해서 고무될 이유는 없다.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다만 박빙에 접어든 만큼 하루 하루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작을엔 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후보가 방문했다. 정 후보는 과거 동작을에 출마한 바 있다.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정 후보는 “정동영이는 여기서 옛날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류삼영을 확실히 당선시켜달라”며 “정의감과 용기를 갖춘 인물은 바로 류삼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60대 추정)은 “옛날에 정동영이랑 찍은 사진이 있다”며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고, 정 후보의 지지연설을 기다리던 한 시민(70대 추정)은 “정동영이 지

원도 하러 왔으니 좋고, 경찰에서 높은 계급 출신이라 일도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이 나타났다. 동작에서 오래 거주한 한 70대 남성은 “일단 민주당이 싫다”며 “나 후보가 이곳에서 오래 터를 닦았고, 여당 후보가 돼야 힘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나 후보가 동네를 잘 아니 여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 강남지역은 여전히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평가받는다. 서초갑·을, 강남갑·을·병 모두 민주당에는 ‘협지’로 불리며, 현재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서초을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되면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을 받았고, 홍 후보도 이 지역 출마는 처음이다. 양쪽 모두 지역에서는 ‘신인’인 셈이다. 지난 선거에서 박경미 후보(현재 서울 강남병 출마)가 45.01%를 받아 낙선을 했기에, 이번에는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의 바람이 보수 텃밭 강남 3구에도 불어닥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남·서초지역에 대해 “송파에서 보이는 균열이 서초와 강남까지 뻗친다면 이번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재섭 “도봉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정치·힘 갖춰”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21대 총선 이후 꾸준히 기반 닦아
“도봉에 대한 입체적 이해있다” 자부
“가장 중요한 것, 교통·주거·산업”

“4년 전 선거가 ‘노와르’라면 지금은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

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36)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도봉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21대 총선 당시엔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하루종일 명함을 뿌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보니 하나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됐다”면서 “예전에는 ‘지라시’를 돌리러 가는 거 같았다면, 이번에는 민원탐방을 하다가 장도 보고 하는, 지난 4년 동



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36)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전에 21대 총선 당시에도 이 곳에 출마를 했다. 사진은 본지와 인터뷰를 하는 김 후보. /김 후보 캠프 제공

안 했던 일을 강도만 더 높여서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생활했던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도봉구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주거·산업이다. 이를 풀려면 정부, 서울시장, 구정장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시장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고, 구청장과는 긴밀하다. 저와 같이 일하는 시·구의원도 있다”며 “말 그대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도봉갑은 1호선 녹천역, 4호선 쌍문역, 1·4호선 쌍문역 등

지하철역이 세곳 뿐이고, 도로교통도 불편하다. 이를 해결해야 젊은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GTX-C 노선을 착공하면 어느 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이사이 고속철도를 넣어주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쓰는 SRT나 KTX 등을 단거리 노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봉갑 유권자를 향해 “4월에 딸이 태어나면 4대째 도봉구에 사는 것”이라며 “4대에 걸쳐 도봉에 사는 사람으로 애정이 있으며, 도봉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그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 또 도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정치 여건과 힘을 가진 것도 저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도봉은 또 30년 낙후될 위기에 처한다”며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고 저도 함께 혼나고 있지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주시고, 고민없이 김재섭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과제·현장 문제들 국민 입장에서 생각”

>> 1면 ‘빠른행동·벽 허물기로...’서 계속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나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면서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 벽도 무너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번 진행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와 관련 ▲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BOX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국민의힘 “청년 공급에 초점” vs 민주당 “전 국민 기본주거”

4·10 총선 공약 비교

부동산

“내 눈앞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내 집은 없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의 탄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주택보급률이 높고, 수도권은 9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이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 정당은 모두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수도권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세부 내역에서 다른 점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양 정당 공약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 국민의힘 ‘노후 구도심 정비’… 민주당 ‘자족기능 갖춘 명품 신도시’ 약속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지역에서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존 주민 반대가 많았던 관 주도의 강압적인 ‘공공도심 복합개발’ 방식은 없애고,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복합개발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연계하겠다고면서 국토계획법과 도심복합개발법상 도시혁신구역의 성장거점형, 입체복합용도구역의 주거중심형 등 2가지 제도 적용을 통해 환승거점 중심업무지구 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을 약속했다.

이밖에 노후화된 구도심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메가시티 거점, 환승역세권, 대규모 이전적지, 준공업지역, 도로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철도역 주변 유희부지 등 다양한 지역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1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위임으로 신속한 재개발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수직·수평증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빈집 녹색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기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추진 및 선교통-후입주 실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급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與, ‘내집 마련’ 청년 위주 주택정책 vs 野, 2040·6080 아우르는 ‘기본주거’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



전세사기 강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전 국토부장관),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여야 주거·부동산 정책 주요공약	
국민의힘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지역에서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한 입체복합개발 추진 관 주도 강압적인 ‘공공도심 복합개발’ 방식 일몰 국토계획법과 도심복합개발법상 도시혁신구역의 2가지 제도 적용을 통해 환승거점 중심업무지구 유통거점 등 특화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메가시티 거점, 환승역세권, 대규모 이전적지, 준공업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 위임으로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수직·수평증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녹색 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추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강화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TX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추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공급 지방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임차주택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청년 내집마련 1·2·3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만 19~39세)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주택: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 내고 장기거주 가능한 분양·임대형 공공주택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동거, 예비부부, 사실혼 모두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1인 가구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 지원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호 보급, 재고량 30만호 확보 추진 6080세대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 직주근접 활성화 등 새로운 공간계획 재설정 추진 세컨드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 부활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유숙박(Airbnb) 형태로 활용 지원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수 제외로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운영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도 주택인도소송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 가능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 방지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

2022년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수도권 90%대… 전국 평균 하회

與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 확대 직주근접 활성화, 수도권 격차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장려

野 자족기능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툃 구성

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등 청년 세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과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래,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형식의 주택공급 구상을 밝혔다.

이에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향된 용적률 일부, 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한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지원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GTX 노선이 깔리는 지역 혹은 노후

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세대를 배려하도록 한 정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직주근접 및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맞춤형 생활공간과 신산업 일자리, 보육·교육 환경을 갖춘 친환경 콤팩트시티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현행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기본주거’를 약속했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연상시킨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2030년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해 세 집 중 한 집에 공공임대 혜택 제공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긴급 주거 제공 등을 통한 비주택 거주 완전한 해소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 산정근거 및 평가절차 투명한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신

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하고,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구분 없이 출산주거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넣었다.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40세대를 겨냥했다.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직장을 은퇴하는 6080세대에게도 복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주택의 공실이 발생하면 공공임대로 사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전환 고령자에게는 공공 요양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도록 해 고령자의 노후를 고려했다.

◆ 국민의힘, 지방의 ‘세컨드홈’ 장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대책 눈길

양 정당은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외에도 부동산·주거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끌었고, 민주당의 경우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 활성화 등 새로운 공간계획을 약속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사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공유숙박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 계획도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취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on**



[이 작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눈 폭풍 덮친 북미 #대규모 정전 #SK온 배터리 #44시간 전력 공급

작품명 **눈 폭풍 속 SK온 배터리**

북미 눈 폭풍, 정전 속에서도
 44시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한계를 넘어선
 SK온의 글로벌 배터리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SK온의 **그린픽처**

‘빅텐트’ 사라진 제3지대 현역 의원들… 지지율 정체 ‘고전’

총선 ‘정권안정 vs 정권심판’ 구도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열풍 잠잠 탈당과정 관계 악화… 단일화 난항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에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권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맞붙으면서 제22대 총선의 구도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짜여졌고, 제3지대 정당이 ‘빅텐트’를 꾸리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구 선거에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정당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13석을 합쳐 총 38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호남 지역구 기반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 옮긴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투표에 선 조국혁신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이 도드라졌다. 조용천·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각각 경기 남양주갑과 경기 화성정에 출마했다. 김종민·설현·홍영표·박영순 의원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도의 ‘새로운미래’에 합류해 각각 세종시갑, 경기 부천시을, 인천 부평구을, 대전 대덕구에 출마했다. 다만, 세종갑에선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종민 의원의 약진 가

가능도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본인이 창당한 시대전환 의원으로 활동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일찌감치 옮겨 서울 마포갑에 도전 중이다. 또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이었다가 현역 민주당 의원 하위 평가 2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고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영주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서 출마했다. 5선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왼쪽 세번째부터)이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 양향자 의원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후 개혁신당과 합당해 경기 용인시갑에 출마했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의원인 허은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해 서울 영등포갑에 도전장을 던졌다. 서울 영등포갑은 당적을 옮긴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출마하면서,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허 의원이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

는 꼴이 됐다. 역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은 자유통합당으로 옮겨 비례후보 1번에 등록됐다. 거대 정당에서 벗어난 후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출마했으나,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탈당하면서 기존 정당과 관계가 악화된 후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주요행보

“주차빌린 강력처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취향 저격’ 7대 공약 발표 ‘불법압표 근절 등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 빌린’ 강력 처벌법 도입,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악한 민심을 반영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향저격 공약발표 행사를 갖고 ▲ ‘주차 빌린’ 강력 처벌법 ▲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 전기차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 불법압표 근절 ▲ 바다치어 방류 확대 ▲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 패스 도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의 자격으로 공약 발표를 한 오창석 작가는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사유지의 불법 주차 행태,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초고가의 외제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린 강력 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오 작가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제도 대폭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준비한 2차녀 또는 3차녀 이상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차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에 서영석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었던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 마음껏 제안해달라. 열심히 ‘네티팅’하여 국민 삶을 바꿀 작은 변화의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고 속속들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범죄자 영업에 당하지마라”

국민의힘

한동훈 총청권 방문… 지지 호소 “총선 이기면 의원 특권 사라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총청권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아산, 천안, 세종, 대전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음성을 돌며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면서 지지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총청권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마라”고 신신당부한 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천안 청당신도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마라”며 “저 사람들은 자기방어하고자 잇속 챙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 말이 과하냐. 과하지 않다. 당장 내세우는 것이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 감옥 가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죄는 맞지만, 복수하겠다’ 이거다”며 “이게 민주주의 정치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세종살리기 집중지원유세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바라냐. 국회의원의 세비가 확 낮춰지길 바라냐.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하며 마치 특권계급인 양 행세하는 거 그만 그치기를 바라냐. 그걸 저희가 해낼 것이다”며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그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지원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70년 간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말 정말 들려주고 싶다”며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尹, 제15회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과감히 재정지원”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재원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일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구본욱號’ KB손보, 순항... 지주사 비은행계열 기여도 1위

작년 순익 7529억... 35% ↑
자산·순익, 국민은행 이어 2위

장기보험 경쟁력, 신상품 등
적극적 대응으로 판매 늘어
‘회사가치 성장률 1위’ 기대감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KB손해보험이 지난해 KB금융지주 내 비은행 계열사 순익 기여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주 계열사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구본욱 호’의 순풍이 기대된다.

KB손해보험은 최근 KB금융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자산과 순익의 측면에서 KB국민은행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순익의 7529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것이다. KB국민은행(3조2615억 원)을 제외한 비은행 계열사인 KB증권(3896억 원), KB국민카드(3511억 원), KB캐피탈(1865억 원) 등을 제치고 순익 1위를 달성했다.

특히 K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전체 순익 1조3704억 원 가운데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순익 합산만 1조91억 원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 전체 순익(4조6319억 원)에서 약 22%를 차지하면서 보험 부문의 성

장이 두드러졌다.

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시장환경 변화로 KB증권, KB국민카드, K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들이 부진을 거듭해 수익 규모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도 KB손해보험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일 “2023년에는 장기보험의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와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장기보험 판매가 늘었다”라며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를 안정화가 이어지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맞춰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주력했다. 유병자 보험, 질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 강화와

매출 확대로 CSM은 8조 원대로 상승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년과 비교해 27.8%포인트(p) 개선됐다.

지난해 KB손해보험의 CSM은 8조 5180억 원으로 전년(7조9450억 원) 대비 7.2% 증가했다. CSM 확보에 도움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원수보험료가 2021년 7조2323억 원, 2022년 7조8401억 원, 2023년 8조3834억 원으로 지속 상승한 점이 주효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미래 이익창출 기반인 CSM 또한 큰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FVPL(당기순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산가치 증가 및 글로벌 주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투자손익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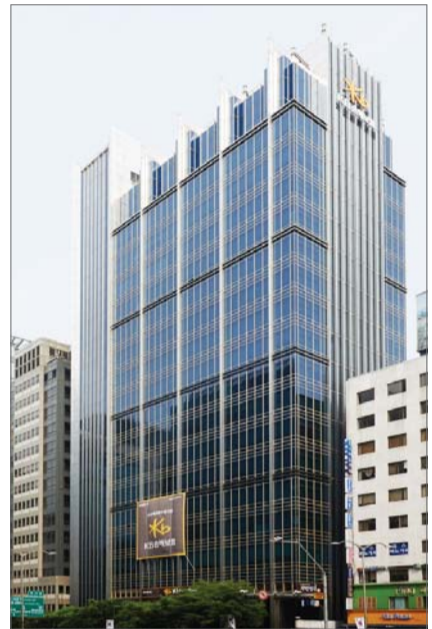
호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취임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의 연착륙은 물론 ‘실적 순풍’이 기대된다. 구 대표가 올해 초 ‘회사가치 성장률 1위’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 대표는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손해율·유지율과 같은 경영 효율지표, 신계약 CSM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미래가치지표, 보유고객·우량고객과 같은 고객가치 지표를 모아 ‘회사

가치’로 정하고 회사가치성장률 1위를 경영목표로 삼은 바 있다.

구 대표는 “KB손해보험은 2015년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KB금융그룹의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며 핵심 계열사로 당당히 자리잡았다”라며 “KB손해보험만의 최적의 색을 찾고 완벽하게 조합하는 과정을 위해 ‘회사가치성장률 1위 달성’과 ‘조직문화 변화 관리의 완벽한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보 본사.

카드 News

삼성카드 해외결제수수료 면제 iD 글로벌 카드 출시

삼성카드가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신상품을 공개했다.

◆ 연 2회 공항 라운지 서비스

삼성카드의 여행, 쇼핑 부문에 집중한 ‘삼성 iD 글로벌 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외수수료 면제 혜택을 탑재했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금액의 2%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충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외 공항라운지를 연간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삼성페이를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최대 2만원 할인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여행 ▲쇼핑 ▲온라인 간편결제 ▲일상영역 등에서 결제금액의 1%를 할인하고 구독, 멤버십 비용의 50%를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봄나들이 고객 위해 국립수목원 티켓 할인

KB국민카드가 봄나들이 고객을 위해 국립수목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추첨 통해 상품권 100만원 지급

KB국민카드는 국립수목원 입장료 50% 캐시백 및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KB페이 국립수목원 예약서비스’를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면 입장료의 50%를 돌려준다. 행사 대상 수목원은 ▲국립수목원(광릉숲)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3곳이다.

KB페이로 예약을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3명) ▲BBQ 황금올리브치킨(10명) ▲GS25 편의점쿠폰 3000원(500명) 등이다.

현대카드 상품 서비스 개선 위해 소비자 패널 16명 운영

현대카드가 상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 문제점 및 아이디어 발굴

현대카드는 ‘2024 현대카드 소비자 패널’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패널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다. 지원자 중 1차 서류 전형 통과한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다. 총 16명의 소비자 패널을 선정했다.

소비자 패널은 ▲20대 2명 ▲30대 6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2명으로 구성했다. 전 연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시니어 고객 및 시각장애 고객을 패널로 선정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밸류업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참여·지배구조 개선 유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면제 방안 추진



회계전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담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뢰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

을 지정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이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DL이앤씨,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현대차 연구원 통해 성능검증 완료
배터리 종류 관계없이 10분 내 진압

DL이앤씨는 중소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을 보인다. 특히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는 진압이 매우 까다롭다. 화재 진압에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소요된다. 소방대원이

직접 화재 차량에 접근해야 하는 데다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

DL이앤씨가 선보인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차 하부 천공(穿孔) 후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차별화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화재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진압을 지시하는 ‘중앙관제 시스템’과 직접 화재를 진화하는 ‘진압 장비’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중앙 관제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 위치로 진압 장비를 이동시킨다. 이어 진압

장비는 강력한 수압을 통해 터빈을 돌려 드릴을 작동한다. 이 드릴은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수압만으로 2분 안에 차체 하부와 배터리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한다.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현대자동차 성능테스트 및 방재시험연구원 ‘전기차 실물차량 화재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리튬이온과 리튬인산철 등 전기차 배터리 종류에 관계 없이 10분이면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 받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DL이앤씨와 탱크테크가 건축물 내 고객 안전을 최우선



DL이앤씨가 중소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작동 모습.

/DL이앤씨

으로 고민한 끝에 탄생한 혁신 기술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을 크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전기차 수요 부진’ K-배터리, 원가절감 통해 생존 ‘사활’

LG엔솔, CTP 기술 통해 경쟁력 ↑
삼성SDI, 원재료 조달 비용 낮춰
SK온, 배터리 생산장비 고도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터리 업계 또한 자체적인 원가 절감 자구책을 통해 수익성 약화에 맞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생산비용을 줄이는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사활이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셀투팩(CTP) 기술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 셀투팩은 셀, 모듈, 팩으로 구성되는 기존 배터리에서 모듈을 뺀 기술이다. 모듈이 빠지는 만큼 셀을 더 넣을 수 있어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고 무게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팩 강성을 높이고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도 키워 경쟁력을 확보했다.

삼성SDI는 원재료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매진 중이다. 삼성SDI는 지난 1월 캐나다 광산 기업인 ‘캐나다니켈’에 8.7%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분은 1850만달러(한화 약 248억원) 규모이다.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캐나다니켈 캐나다 온타리

 LG 에너지솔루션

 SK on
 SAMSUNG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CI.

/각사 제공

오주에서 니켈 광산을 개발하는 ‘크로퍼드 프로젝트’의 니켈 생산량 10%를 확보할 수 있다. 원재료 공급처를 다변화해 단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SK온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배터리 생산장비 고도화를 꾀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장비 개조 없이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둬 제조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지난 2023년 12월 백호프로토메이션, 시스코,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등과 배터리 생산장비 제어 및 통신시스템 고도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업계는 배터리 제조라인의 자동화·스마트팩토리화를 통해 인건비를 낮춰 생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유럽·북미 등 인건비가 높은 권역 내

가동하는 공장이 늘어나면서 제조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유럽에 선제 진출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과거부터 배터리 라인 자동화를 추진해 왔다. 사람 손을 타는 공정 수를 최소화하고 물류 라인을 정비해 생산성은 확대하고 인건비는 줄이기 위해서다. 유럽 공장 초기 가동 당시, 잦은 인력 이탈과 엔지니어의 공정 성숙도에 따라 수율이 올라오지 못한 점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높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며 “내연기관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한층 높아진 플래그십 세단의 품격”

‘The 2024 K9’ 연식변경 모델 출시

기아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상품성을 강화한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기아는 내·외장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사양을 적용한 ‘The 2024 K9’을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번 K9의 외장에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새롭게 적용하고 신규 내·외장 색상을 도입해 플래그십 이미지를 더욱 높였다. 특히 수평형 패턴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테두리의 얇아진 크롬 베젤과 어우러져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해 K9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형성한다.

더 2024 K9의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 ‘페블 그레이’를 포함해 총 5종으로 운영되며, 내장 색상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으로 운영된다.

또 기아는 더 2024 K9의 기본 트림부터 ▲애프터 블로우 ▲C타입 USB 단자(전/후석 콘솔 내부) ▲차량용 소화기 등 고객 선호 사양 및 안전 사양을 신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운영하고, 동승석



기아 The 2024 K9 외장.

메모리 시트를 마스터 트림부터 기본화하는 등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동승자 편의성을 확보했다. (*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는 VIP 컬렉션 옵션 또는 베스트 셀렉션 II 트림 기본 적용)

판매 가격은 3.8기솔린 모델 ▲플래티넘 5933만 원 ▲베스트 셀렉션 I 6665만 원 ▲마스터즈 7395만 원 ▲베스트 셀렉션 II 8210만 원이며, 3.3기솔린 터보 모델 ▲플래티넘 6588만 원 ▲베스트 셀렉션 I 7241만 원 ▲마스터즈 7870만 원 ▲베스트 셀렉션 II 8685만 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엘티엄셀즈 직원들이 제2공장에서 생산된 첫 배터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GM 합작 2공장 첫 배터리 공급

건설 시작 2년 반 만에 성과
GM ‘캐딜락 리릭’ 등에 탑재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법인 엘티엄셀즈(Ultium Cells) 제2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배터리 셀이 고객사에 인도됐다. 첫 ‘Made by Ultium Cells Spring Hill’ 제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 지역에 위치한 엘티엄셀즈 제2공장이 건설 시작 2년 반 만에 첫 번째 배터리 셀을 만들어 고객사에 인도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캐딜락 리릭(Cadillac Lyriq)’ 등 GM 3세대 신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엘티엄셀즈 제2공장은 단계적으로 가동 라인을 늘려 총 50GWh(기가와

트시)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엘티엄셀즈 제2공장은 자동화·정보화·지능화 등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각의 생산 단계마다 최첨단 품질 검사 및 제품 오류 검증 방법 등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엘티엄셀즈 제1, 제2공장 모두 해외 사업장을 다년간 운영해온 LG에너지솔루션의 풍부한 양산 경험, 고객 가치 역량,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란 3박자가 총 집결된 작품”이라며 “초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엘티엄셀즈는 지난 202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1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가동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수율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시간주 제3공장 역시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김영득 엘티엄셀즈 제2공장 법인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탄생한 제2공장은 제1공장, 제3공장과 더불어 북미 전기차 시장의 핵심 기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압도적 기술 리더십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SDI, ESS용 배터리 라인업 선보인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

삼성SDI가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에 참가해 ESS용 배터리 라인업을 전시한다.

삼성SDI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4번째 맞이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이다.

삼성SDI는 ‘A Sustainable Future Driven by PRIMX(프라이믹스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차리고, 전력용 SBB(Samsung Battery Box),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고효율 배터리 등 다양한 ESS용 배터리 라인업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SDI는 SBB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SBB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제품으로 내부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이 설치되어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SBB에는 하이니켈 NCA 양극재 등 삼성SDI의 최신 소재 기술을 적용해 3.84MWh(메가와트시) 용량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직분사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안전



오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에 참가하는 삼성SDI의 전시회 부스 조감도.

/삼성SDI

성을 강화했으며, 미국 화재 안전성 평가인 UL9540A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3월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4’에서 ‘ES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해 IT업체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UPS용 배터리도 전시한다. 이는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으로 서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효율 솔루션 제품이다.

이와 함께 삼성SDI는 ESS용 배터리 셀 라인업과 함께 개발 중인 LFP 배터리를 전시한다. 삼성SDI는 제품설계 최적화, 공정 혁신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후 원: 충청북도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애플, 플랫폼시장 독점 의혹

공정위, 美·EU 이어 혐의적용 법리검토 나서

美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소장 받아 EU, DSA·DMA 근거로 조사 중

한기정 “플랫폼, 반칙·기만행위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감시할 것”

애플의 플랫폼 시장 독점 의혹을 두고 미국과 EU가 강도 높은 조사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 역시 관련 법리 검토를 시작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소장을 받아 한국에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 내용은 앞서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룬다.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지난 21일 서면 독점금지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애플 단독 운영체제(OS)인 iOS를 이용해 아이폰 작동 체계를 통제하고 일부 앱과 서비스를 합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는 소송을, EU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

제한했다는 혐의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맥을 포함해 아이폰까지 자사만 이용 중인 파일 형식이다.

애플은 자사만의 파일 형식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 대해서 호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와 이미지 간 차이가 앞선 사례의 결과로, 디자인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경쟁사 스마트 워치 및 간편결제 연동까지 제한한다.

애플의 천문학적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여기서 근거한다. 애플

의 인앱 결제 수수료 수익은 100조원에 이른다.

EU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의 앞선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미 아마존은 지난달 27일 DSA 관련 첫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EU는 DMA 위반 1호 사례로 애플, 구글, 메타를 선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만큼 미국 법무부가 낸 소송과 결이 같다.

EU의 조사는 최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거두는 총 매출의 10%, 2023년 기준 4000억 달러(550조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이은 조사와 소송 소식이 이어지며 지난 1분기 주가도 11% 급락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플랫폼법 입법 추진 당시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 됐던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애플의 폐쇄적인 기기 운영정책은 보안과도 관련있다”며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단적인 몇 가지 사례로 조사하는 게 옳은지도 알 수 없고, 해당 조사로 기업 내 보안이 훼손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소송과 조사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대국의 새로운 목표”라며 “플랫폼의 반칙 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강종오 모빌리티사업담당(사진 왼쪽)과 모비릭스 임중수 대표(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모비릭스와 차량용 게임개발

LG유플러스가 차량용 게임 분야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게임 기업 모비릭스와 차량용 게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콘텐츠로 게임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투리 시간을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이를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차량용 게임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짧은 시간에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차량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 초기에는 간단한 터치 위주의 게임에 집중할 예정이다.

모비릭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5000만회 이상의 캐주얼 게임 10여 종을 포함해 200종 이상의 작품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이다. 대표 게임인 벅돌깨기 퀘스트는 미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 등 국가에서 인기를 끌며 올해 3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2억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모비릭스는 게임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최적화된 게임의 개발 및 공급을 맡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SK C&C

CJ대한통운 택배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공급

SK C&C가 CJ대한통운의 새로운 택배 시스템 로이스 파슬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로이스파슬은 CJ대한통운이 2021년부터 3년간 개발한 하루 최대 2000만 건에 달하는 초거대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택배 시스템이다.

SK C&C는 이번 사업에서 로이스 파슬의 택배코어, 고객센터, 모바일 등 택배 핵심 업무 영역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조성해 대규모 디지털 택배 물량 처리 환경을 제공했다.

오토 스케일링(Auto Scaling)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특수기나 피크타임 때 발생하곤 했던 시스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또 각 업무 영역을 독립된 분산 데이터베이스(DB)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로 설계해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택배 코어 업무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은 장애와 상관없이 상품 추적, 예약과, 문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종찬 SK C&C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그룹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전환을 통해 대규모 택배 물동량 처리 환경을 마련했음은 물론 현장 및 고객에 맞춰 택배 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첫 조직개편 단행

탄소중립팀, 기술총괄 등 신설·통합 조직구조 슬림화·컨트롤타워 강화 이유경 등 여성 임원 약진 두드러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지주사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포스코홀딩스는 4월 3일부로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경영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본원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주사 내 철강팀·수소사업팀과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업무의 주요 기능을 지주사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신설되는 ‘탄소중립팀’이 통합 관리하게 되어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차전지소재사업 전략기획 및 사업추진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기능을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이관하여 ‘이차전지소재사업관리팀’을 신설했으며, 그룹차원의 R&D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기술총괄’을 신설하고 포스코기술투자의 신사업 기획, 벤처 기능도 이관하여 지주사 주도의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강화한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컴플라이



이유경
경영지원 팀장



김희
탄소중립전략실장



한미향
커뮤니케이션 실장

인스 기능 강화를 위해 ESG팀과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사무국’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포스코홀딩스 정기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성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포스코홀딩스 경영지원팀장으로는 포스코그룹 역사상 첫 여성 사업회사 대표인 엔투비 이유경 사장이 보임한다. 또 탄소중립팀 탄소중립전략실장은 포스코 여성 공채 1기로, 광양제철소 2제강공정장, 생산기술기획그룹장을 역임한 포스코 김희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는다.

커뮤니케이션팀 홍보담당은 포스코·포스코퓨처엠 홍보그룹장 및 포스코홀딩스 언론담당 상무보를 역임한 그룹내 손꼽히는 홍보 전문가인 포스코한미향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선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위성통신 기술로 산불 진화 스타링크와 본격 실증 추진

SK텔레콤이 산불 등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자회사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링크 코리아와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산림청 대책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 불량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SK텔레콤과 SK텔레콤,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 연구팀, 콘텔라, 유알정보기술, 에프엠웍스, 설악이앤씨 등이 참여한다.

/구남영 기자

경기회복 기대감... 외국인 몰린 中 증시 '탄력'

제조업 동향에 쏠 증시 희비

中 차이신 PMI 51.1, 예상치 웃돌아 일본 증시, 3만9000대 '숨고르기' 제조 대기업 업황판단지수 2p 하락



/유투이미지

엇갈린 제조업 동향이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탄력을 더하는 중이다. 반면, 상승 흐름을 유지하던 일본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반등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몰들어 파죽지세의 사상최고치 경신행진을 벌이던 일본증시 니케이225는 전날 붕괴된 4만 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3만9000대에 머물렀다.

부활절 연휴로 29일부터 1일까지 휴장했던 홍콩증시 항셱지수도 장중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3시계(현지시간)에 전 거래일보다 2.13% 상승한 1만6894.35에 거래됐다.

다만 전날 1.19%가 오르면서 최근 한달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8% 떨어진 3074.96에 마감했다. 반면, 니케이225는 전 장보다 0.09% 상승한 3만9838.91에 강보합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의 희비는 제조업 동향으로 갈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날 S&P글로벌은 올해 3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직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1.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으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도달했다. 중국 산업생산의 회복가능성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이어지면서 한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인 1.19%가 뛰었다.

SK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PMI의 경우 생산, 신규주문이 모두 크게 반등했다. 특히 신규수출주문은 작년 2~3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상회했다. 비제조업 PMI 역시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되면서 경기 반등 기대감을 확대시켰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사실 작년에도 3월 정치행사인 양회 시즌에 경기 센터멘트가 개선됐다가 다시 고꾸라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이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면서 "최근 중국의 정책들이 외국인 자금 유치 노력 등 경기 개선이 지

속될 수 있게끔 나오고 있어 단순히 작년과 같이 경제주체들의 실망감 속에 PMI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에 매수세로 복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주 외국인인 상해 증시에서 약 68억9800만위안(1조2850억 원)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장회사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장려, 대주주 지분 매각 억제, 신규상장 조건 강화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일본은 일본은행(BOJ)이 발표한 1분기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에서 제조 대기업 업황판단지수(DI)가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동향이 엇갈리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니케이225 지수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결국 반났던 4만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TPG 안젤로고든과 韓 부동산 투자 협약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TPG 안젤로고든(TPG Angelo Gordon)과 부동산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과 TPG 안젤로고든은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에서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저평가 돼있는 국내 개발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NPL(부실채권)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특수상황 투자는 자산 본연의 가치나 경쟁력과 별개로 예기치 못한 이벤트로 저평가 받거나 어려워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양사는 국내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투자처 모색·deal sourcing) 역량과 TPG 안젤로고든의 자금력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양사의 힘이 합쳐지면 금융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딜 클로징(계약완료·deal closing)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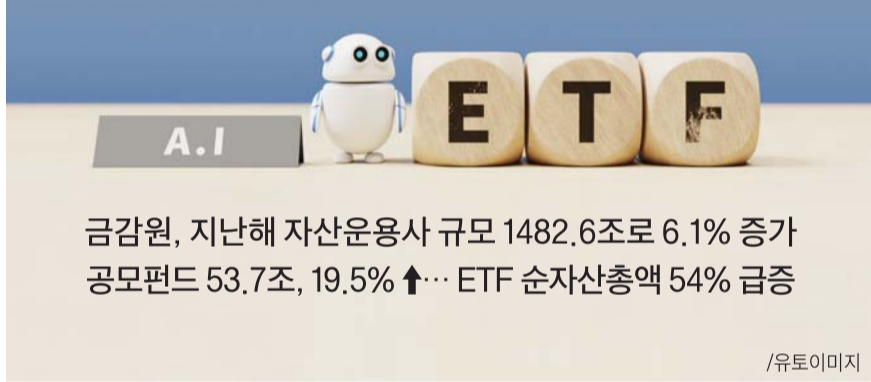
자산운용사 순익 증가... "올해 ETF 경쟁 치열할 것"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공모펀드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도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선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148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조 7000억 원(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펀드수탁고 중 공모펀드는 3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말 보다 53조 7000억 원(19.5%) 늘었고 전체 운용자산의 35.6%를 차지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최근 10년 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중 ETF의 순자산총액은 2022년 말 78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21조 1000억 원으로 54.3% 급증했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전년 말보다 40조 원(7.2%) 증가한 595조 6000억 원(64.4%)이다. 사모펀드는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을 위주로 증가세가 집중된 모습이었다.

자산운용사들의 작년 말 투자일임



/유투이미지

계약고는 557조 8000억 원으로 채권형(422조 5000억 원), 주식형(93조 9000억 원), 혼합채권(9조 4000억 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전체 468개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6023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기순이익(2조 8513억 원)보다 43.8% 줄어든 수치다.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38.2%)은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측은 "2022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이익이 2조 원대로 컸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468개사 중 289곳이 흑자, 179곳은 적자가 났다. 적자 회사 비율은 전년도 50.3%에서 38.2%로 줄었지만 2021년 10.9%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다. 일반 사모운용사의 경우 387개 중 166개사(42.9%)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적자 비율 57.3%와 비교해 14.4%포인트 감소했다. 운용사들의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1%로 전년 대비 1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금감원은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최근 10년 동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적자 회사 비율도 줄었으며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이 제고되면서 실적이 호전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ETF 혼풍에 AI 섹터 ETF, 월배당 특화 ETF, 반도체 섹터 ETF 등 상승 테마 ETF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ETF 브랜드 교체에 나서며 고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22년 배재규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기존 'KINDEX'에서 'ACE'로 브랜드를 교체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브랜드 명이 직관적이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향후 새로운 테마주를 발굴하거나 안정적인 월배당이 확보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숙제"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키움증권 19-6국고채 장외판매

키움증권은 '국고 01125-3909(19-6) 채권'을 장외채권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19-6 국고채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으로 발행돼 투자위험등급은 매우 낮은 위험이고, 만기는 15년 후인 2039년 9월 10일이다.

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같은 채권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가 활발하다.

키움증권을 통해 19-6 국고채 장외채권 매수를 할 경우 매수 수익률은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세전 연 3.24%이다. 7452원으로 19-6 국고채 액면가 1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은 "당사는 판매마진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에 장외채권을 공급해, 채권판매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19-6 국고채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금리가 대체로 낮았던 2019년 발행된 채권이라 6개월마다 지급되는 표면금리는 세전 연 1.125%이며, 세금도 1.125%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키움증권의 주식 거래 모바일 앱인 영웅문S#이나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매수할 수 있다. 최소 매수금액이 액면가 1000원부터다. 키움증권은 현재 국고채뿐만 아니라 20종 이상의 회사채, 신종자본증권이나 단기사채도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MS株 3989만 달러 매수... 서학개미, 美 테크주에 투자

해외주식 Click

대만 TSMC 3282만 달러 사들여 엔비디아·버티브 홀딩스 등도 인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가 정제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테슬라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여전히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테슬라 주가가 바다

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3월 26일~4월 1일) AI 기술을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3989만달러어치 매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지난 2월9일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420달러선에 머물러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000억 달러(약 134조 6000억 원)를 투자해 AI 용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서학개미는 AI 수혜주로 꼽히는 TSMC(3281만달러), 엔비디아(2872만달러), 버티브 홀딩스(1794만달러) 등도 순매수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의 주가가 지난달 초에 비해 5.17% 하락하는 등 조정을 받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주가도 지난 3월 25일 950.02달러에서 이달 1일 903.63달러까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테슬라를 3789만달러어치 사들였다. 테슬라는 비야디, 샤오미 등에 밀려 1분기 인도량 전망도 밝지 않지만 170달러대인 주가가 싸다는 인식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한달간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무료 사용 기회 제공 등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급선화된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주식시장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고용지표에 주목하며 지수상단을 테스트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금융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이어질 1분기 기업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경기 침체에도 잘 나가는 SUV... 쏘렌토 2.7만대 팔려 1위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보 등 증가세 1분기, 2위 쏘렌토 2.3만대 판매고 캠핑·차박 등에 준중형차 수요 ↑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급 이상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선호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보한 SUV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판매량이 늘었던 경차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기아의 중형 SUV 쏘렌토로 2만6929대를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쏘렌토로 2만3313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쏘렌토와 쏘렌토 모두 중형 SUV지만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하며 판매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쏘렌토(1만9729대)로 나타났다. 현대차에서는 쏘렌토 하이브리드(1만5981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038대를 판매했다. 이 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485대 판매되며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1분기 5178대 판매를 기록하며 한국지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현대차 5세대 신형 쏘렌토 전측면.

엠의 판매량(1분기 전체 6919대)을 견인하고 있다.

KGM은 중형 전기 SUV '토레스 EVX'로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KGM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전년 대비 47.2% 감소했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하며 선방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토레스 EVX 흥행이 주효했다. 수출의 경우 토레스 EVX와 렉스턴 스포츠&칸 등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호주, 영국 등에

서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 글로벌 출시 확대 등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2023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차 판매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국내 대표 모델인 캐스퍼가 4만5451대로 5.3%, 기아 모닝이 2만5879대로 11.9% 감소했다. 올해 1~2월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 경차 판매량은 1만7298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수요층이 증가하면 경차를 선호하지 않는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출시되는 준중형 차량들의 경쟁력도 시장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세계 휩쓴 현대차그룹, E-GMP 기술력 주목

기아 EV9, 올해의 자동차·전기차 수상 현대차, 아이오닉5 N 고성능차 선정

대한민국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2월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열린 2024 월드카 어워드에서 기아 EV9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N은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로 뽑혔다.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5, 2023년 현대차 아이오닉6, 2024년 기아 EV9 등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전기차에 오르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20년 선보인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 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를 포함하면 총 4번에 걸쳐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자동차 그룹을 통틀어 가장 많은 올해의 차를 배출한 회사로 자리잡았다.

같은 기간 월드카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올해의 차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를 포함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영향력 있는 6개의



현대차 아이오닉5.

올해의 차로 범위를 넓혀도 현대차그룹은 총 274개의 상 중에서 2위 폭스바겐 그룹 33개의 두 배수인 66개를 수상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집계를 따져도 현대차 28개, 기아 27개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3위 마쓰다(19개), 4위 폭스바겐(17개), 5위 혼다(16개)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현대차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도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상을 받아, BMW, 포르쉐, 벤츠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다. 특히 아이오닉5는 최근 10년간 6개 올해의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동차로 기록됐다.

/양성운 기자

SKB, 인기 웹툰 원작 애니 5편 B tv서 공개

'웹툰 애니가 되다' 메뉴서 시청

SK브로드밴드는 인기 K-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5편을 IPTV 업계 최초로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개되는 애니메이션은 ▲누적 조회 수 1600만 이상을 기록한 웹소설 원작의 '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 ▲캠퍼스를 배경으로 로맨스 코미디를 그린 '너와 나의 눈높이' ▲뱀파이어와 여고생의 사랑을 소재로 한 '달달한 그녀' ▲영혼 체인지 정지 스틸러 스토리인 '니브' ▲누적 조회 수 2400만 이상에 달한 히트작 '매의 검' 최수정 작가의 '화화원행기' 등이다. 해당 작품들은 B tv와 모바일 B tv 애니메이션 홈의 'K-웹툰 애니가 되다' 메뉴에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서비스에 웹툰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투니모션의 '디지털 컷아웃' 기법을 도입했다. 정지된 이미지를 애니메



SK브로드밴드 모델이 B tv를 통해 K-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5편을 시청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이션화 하는데 중요한 이 기법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핵심요소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뽀롱뽀롱 뽀로로' 등 60여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해 고객의 눈높이,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강자로 입지를 다져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르쉐, 7년만에 '3세대 파나메라' 등장

"세단·스포츠카 기능 결합된 모델"

포르쉐코리아가 7년 만에 새로운 파나메라 모델을 출시했다.

2017년 2세대 파나메라를 한국에 선보인 이후 처음 출시하는 3세대 모델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가 고전하는 가운데, 3세대 파나메라가 반전을 몰고올 지 주목된다.

포르쉐코리아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3세대 파나메라를 국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파나메라4와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연내 파나메라 4E-하이브리드도 선보인다.

출가 게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3세대 파나메라는 국내 럭셔리 클래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총괄 사장은 "파나메라는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스포츠카 기능이 결합된 모델"이라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포르쉐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가 게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파나메라4는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는 51kg.m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까지 5초가 걸린다.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는 파나메라에서 선보이는 네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새롭게 개발된 190마력의 전기모터와 함께 총 68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보여준다. 시스템 토크는 94.9kg.m를 갖췄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은 3.2초에 불과하다.

파나메라 특유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인상적이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을 잘 살렸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한화오션, LNG선 4척 1.2조 수주 성과

한화오션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1조2000억원이 넘는 수주 성과를 올렸다.

한화오션은 최근 아시아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1조2391억원에 수주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LNG

운반선 1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계약해 32억7000만달러(한화 약 4조 4226억원) 상당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구체적으로 이번 계약 발주처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카타르 2차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양성운 기자



PREMIUM GOLF STUDIO

보면 볼수록 핸디가 내려가는 영상?

검색하세요
주노골프 



김준호 프로 ■ 유튜브: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juno_kim_44** ■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KPGA 프로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구인난' 한식당·호텔·콘도업도 이달부터 外人 고용허가 신청 가능

고용부,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한식당, 100개 지역서 주방보조원 호텔·콘도, 주방보조·건물청소원 서울·부산·강원·제주서 신청 가능

앞으로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이번 2회차 도입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590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955명), 서비스업(4490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조선업(1824명) 순이다. 초과



지난해 6월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컸던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었다.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

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된다.

올해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강원도 새 사과산지 육성 전략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서 조성

정부가 기후변화 여파로 재배적지가 북상함에 따라 양구·평창 등 강원도를 새 사과 산지로 키운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해, 유통 구조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신규 산지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강원지역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5대 산지 면적을 기존의 2배(2023년 931ha·헥타르→2030년 2000ha)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지자체 사업을 연계한 스마트 과수원 확대와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유통 단계 단축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등 유통비용 10%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자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방안이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자 직거래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자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중소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선 재해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사과 10대 주산지 중 9개소, 배 10대 주산지 중 6개소 등 20곳의 위험 지역에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 확대 및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계약재배는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량의 30%(사과 15만t, 배 6만t)까지 확대해 명절 수요의 50%, 평상시 수요의 25%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푸드 수출, 유럽·美 두 자릿수 증가율

(각각 27.4%, 16.7%)

수출액,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전년비 3.4% ↑... 22.7억달러 中·日·서포 지역 수출 줄어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에 달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은 줄었고, 아세안은 소폭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지난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2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분기 1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22억2000만 달러), 2023년 1분기(21억8000만 달러) 등 호조를 보여 왔다. 올해 1분기에 이를 더 넘어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1분기 1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억6500만 달러로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도 3억800만 달러에서 3억5200만 달러로 14.2% 늘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라며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국가 기준)은 미국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바이어 초청 K-푸드 수출상담 행사의 모습 /농식품부

또 "유럽 지역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했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한류 인기와 K-푸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억6400만 달러)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30.1%)과 쌀 가공식품(34.0%)이, 신선식품 중 포도(21.8%)·김치(6.1%)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고르게 수출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 대상 수출액도 높은 성장세(34.8%)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기계·스마트팜 수출 시 무역보험 우대

산업부-농식품부 협업... 오늘부터 시행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시에도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이날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 우대를 적용받는다.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 수출액은 2022년 460만달러에서 2023년 1억4300만달러로, 농기계 수출은 2020년 10억3000만달러에서 2023년 15억3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162억달러에서 2028년 254억달러로 연간 9.4% 성장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성어기 맞아 中 불법조업 단속 강화

4월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정부가 이달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수출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

획이다.

특히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객의 건강, 최우선 가치... ‘오트’ 영양성분 그대로 담아”

■ 헬시 인터뷰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열풍이 불면서 식품기업들은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들의 탄생 배경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유제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매일유업은 100% 식물성 오트(귀리)음료 브랜드 ‘어메이징 오트’를 운영하며, 식물성 대체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어메이징 오트는 출시 1년만인 이듬해 2000만팩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현재 관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어메이징 오트를 선보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매일유업은 ‘고객의 건강한 삶이 최우선 가치’라는 미션 아래 유제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식물성 음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2015년 미국 블루다이하몬드사와 협업해 아몬드 음료 전문 브랜드 ‘아몬드브리즈’를 론칭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매일유업은 새로운 식물성 음료 시장 확대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었고, 2019년 차세대 식물성 음료로서 ‘어메이징 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제품을 개발하면서 중점을 두고 차별화한 부분은 무엇인가.

출시 1년 2000만팩 판매, 업계 1위 식이섬유·단백질 살리는게 원칙 기획부터 출시까지 2년이상 걸쳐 해외선 라떼업선 2번째가 ‘오트’ ‘바리스타’ 상품으로 카페 공략 커피에 최적화 맛 구현해 ‘인기’

“식물성 음료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다. 매일유업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인 오트의 특성을 음료화했을 때에도 고스란히 살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오트를 직접째로 국내로 들여와 직접 가공하고 음료화하는 전 생산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원료 선정부터 고품질의 오트를 생산하는 핀란드의 오트만 100% 사용했으며, 저희가 개발한 자체 공정을 통해 기존 제



매일유업 연구소 매일이노베이션센터 곡물셀 연구팀 성창현 팀장(왼쪽부터), 소병천 연구원, 정재인 연구원이 음료를 시음하고 있다. /매일유업

품들 보다 달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맛의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저회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트 음료 제조와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오리지널 맛 외에도 어메이징 오트 언스위트, 바리스타, 커피, 초콜릿 등 자체 개발한 다양한 플레이버의 어메이징 오트 제품들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개발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을 매일유업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공정개발이 가장 어려웠다. 오트는 음료로 만

들기 어려운 곡물 소재다. 기존 두유나 아몬드 음료를 만드는 공정으로 오트 음료를 제조하게 되면 ‘죽’과 같은 제형이 되기도 했다. 오트 음료의 식감과 맛을 결정하는 효소 반응 조건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난이도 높은 개발 과제였다.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트의 영양성분을 그대로 담은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카페에서의 소비량도 상당하던데.

“이미 해외에서는 우유 다음으로 오트가 라떼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

일유업도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하였고 국내에서도 오트가 카페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메이징 오트는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라는 상품으로 카페를 공략하고 있다. 어메이징오트 바리스타 제품은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풍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개발 과정부터 매일유업의 커피제품 연구원분들과 다양한 바리스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오트 음료가 커피와 함께 했을 때 최적의 조화로운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카페 바리스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 유제품 소화가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다양한 음료 메뉴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오트 음료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식물성 대체유 시장 리더로서 부담감도 있다.

“매일유업은 두유, 아몬드음료, 오트음료로 3가지 식물성음료 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고, 늘 새로운 시도를 먼저 하는 기업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부담감도 있지만, 새로운 식품 소재와 영양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세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건강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면세점, 정샘물 ‘효리 립’ 선보여

신제품 ‘뉴클래식 글레이즈 립스틱’ 총 6종 중 애플러팅 등 3종 우선 출시

신세계면세점이 글로벌 유통 채널로는 가장 먼저 K뷰티 브랜드 ‘정샘물’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신제품 ‘뉴클래식 글레이즈 립스틱’은 뛰어난 보습 광택과 촉촉한 발림성은 물론 기존 글로우 립스틱의 뭉개짐을 개선한 고경도의 제형이 특징이다. 대표 색상인 ‘나르시즘 핑크’는 ‘효리 핑크’라는 별칭으로, 정샘물 전속모델인 가수 이효리가 추천하는 제품이기도 하다.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정샘물 전속모델 이효리와 신제품 ‘뉴클래식 글레이즈 립스틱’ 이미지. /신세계면세점

정샘물은 국내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K뷰티를 선도해온 정샘물이 지난

2015년에 설립한 브랜드다. 2018년 해외몰을 오픈하고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신제품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6가지 중 대표 색상인 나르시즘 핑크와 애플러팅, 듀이 탠저린 등 3종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명동점에서는 10층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정샘물 광고도 송출한다. 정샘물과 손을 잡은 이효리가 등장해 명동점 방문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컬리서 주류 주문, CU서 찾아가세요”

‘CU바’ 주류 픽업 서비스

컬리는 편의점 CU와 주류 셀프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컬리에서 주문한 주류를 전국 1만7000여개 CU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게 됐다.

‘CU 바(BAR)’ 주류 픽업 서비스는 컬리에서 주류를 구매 후 고객이 지정한 CU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 방식이다. 주문 완료 후 생성되는 픽업 QR코드와 신분증만 제

시하면 된다. 지도로 주변 CU 매장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후 3일 뒤부터 수령 가능하다.

컬리에서 CU의 와인, 위스키, 맥주, 리큐르 등 300여 가지 주류를 만나볼 수 있다. 취향에 맞는 주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페이지에 전문가의 테이스팅 노트를 담아 향, 맛, 목 넘김 등 다양한 풍미에 관한 내용도 소개된다. 페어링 음식도 함께 추천해 구매한 주류를 120%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오비맥주 한맥 “부드러운 환상거품 즐겨요”

‘엑스트라 크리미 생’ 출시 캠페인

오비맥주가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출시를 기념해 한맥의 부드러운 음을 강조한 신규 캠페인 ‘As Smooth As Possible’을 펼친다.

오비맥주 한맥은 최근 ‘스페셜 마이 크로 크림 탭’을 적용, 생맥주를 업그레이드해 한층 더 부드러워진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을 선보이는 등 ‘부드러운’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다. 수지와 함께한 이번 신규 TV 광고에서도 한맥만의 부드러운 ‘환상거품’을 알린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한맥 TV 광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 높은 거품이 스스로 차오르는 생맥주를 경험하는 수

지의 모습을 담았다. ‘기다리면 스스로 차오르는 부드러운 환상거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맥의 풍부한 거품과 극대화된 부드러운 풍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TV와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캠페인 키워드 ‘As Smooth As Possible(가능한 부드럽게)’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대변하는 문구인 ‘ASAP(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를 한맥의 부드러운 매력을 상징하는 단어 ‘Smooth’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한맥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워진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을 선보이기 위해 4월 10일까지 여의도 IFC몰에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신원선 기자

‘켈리’ 출시 1주년... 누적 3.6억병 판매

하이트진로, 1초당 11.5병 판매한 셈

국내 맥주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킨 ‘더블 임팩트 라거-켈리’가 출시 1주년을 맞았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켈리’가 누적판매 3억6000만병(3월26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초당 약 11.5병이 판매(330ml 기준)된 꼴이며, 병을 누이면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길이의 양이다.

켈리의 선전 덕분에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맥주 판매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 주류시장 규모의 감소세에도 켈리

와 테라의 듀얼 브랜드 전략이 전체 맥주 판매량과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전체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성장했으며, 하이트진로 내부 자료 기준 20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맥주 출고량을 기록했다. 켈리는 2023년 4월 출시 후 36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99일 만에 1억병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맥주 역사상 출시 초기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롯데웰푸드 ‘제로’ 빙과 4종 첫 선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가 빙과 4종을 새로 선보이며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강화한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바류 2종(제로 트리플 초콜릿 바, 제로 쿠키앤 크림 바)와 허타입 2종(제로 딥 초콜릿 파인트, 제로 쿠키앤크림 파인트)이다.

롯데웰푸드 제로는 설탕과 당류가 없어 맛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브랜드를 표방하며 ‘헬스&웰니스’ 트렌드를 공략한다. 기존 과자와 다른 맛이지만 설탕이 없어 맛과 건강한 느낌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CJ, '더 CJ컵 바이런 넬슨' 준비 만전... "K-푸드 가치 전달"

(PGA 투어 정규 시즌대회)

10년간 바이런 넬슨 타이틀 스폰서 비비고 제품 활용 선수식사 제공 현장 방문인원 대상 컨세션 운영

PGA 투어 정규 시즌 대회이자 15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풀-필드 대회인 '더 CJ컵 바이런 넬슨' (총 상금 950만 달러)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 위치한 TPC 크레이크 랜치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승자에게 우승 상금 이외에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과 2년의 투어 시드 그리고 당해 년도 시그니처 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CJ그룹은 지난해 9월 계약을 통해 2024년부터 10년간 바이런 넬슨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다. 이에 '더 CJ컵'은 PGA투어에서도 유서깊은 대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2017년부터 쌓아온 '더 CJ컵'의 대회 유산과 PGA 투어 최초의 선수의 이름을 딴 대회인 바이런 넬슨의 전통이 융합되며, 선수와 팬 모두에게 최고의 골프 축제로써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선수와 팬들이 K-Food를 경험하고 전 세계에 비비고 브랜드를 알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J그룹

'더 CJ컵'은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3년간 클럽 나인브릿지(제주)에서 개최됐고, 이후 3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네바다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열렸다. 올 해부터는 바이런 넬슨과 함께 새로운 대회로 변모한 만큼 '더 CJ컵'의 유산을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최대한 계승해 전통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1944년 시작된 달러스 지역의 대표 대회로 1968년부터 PGA 투어 레전드 바이런 넬슨

의 이름을 딴 대회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텍사스주 달러스 지역의 비영리 단체인 달러스 세일즈맨십 클럽이 주최하며, 이경훈, 강성훈, 배상문 등 한국 선수가 4번 우승을 하며 국내에 잘 알려진 대회이다.

특히 CJ소속 이경훈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우승하며 대회와 깊은 인연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호주의 제이슨 데이아가 PGA 투어에서 5년 만에 다시 우승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그간의 'P

GA 투어 맛집'으로 정평이 나있던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PGA 투어 선수와 전세계 골프 팬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나아가 비비고가 전세계인에게 명실상부한 'K-푸드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출전 선수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플레이어스 다이닝'에서 비비고 브랜드 제품을 활용한 요리를 제공해 K-푸드의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기념해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뉴 선정에는 한국 팬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CJ 그룹은 현장을 방문하는 전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선보이고 맛볼 수 있는 '비비고 컨세션'도 운영하며 비비고 주력 제품인 만두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의 맛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비비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한식으로 더 맛있는 일상'을 뜻하는 'Live Delicious'의 가치를 전달해 K-푸드 세계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제품 소식

스타벅스코리아 "쁘띠 까눌레" 맛보세요

스타벅스코리아가 차별화 상품으로 한입 사이즈의 미니 디저트 '쁘띠 까눌레'를 오는 4일부터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쁘띠 까눌레는 이름처럼 작은 크기로 기획된 핑거푸드로 자연방사 유정란과 바닐라 럼을 활용하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진 상품을 현지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다.

해당 상품은 달콤한 바닐라 향과 짙게 씹히는 맛이 일품으로 식감 극대화를 위해 매장에서 한 번 더 구워낸 후 진열된다. 또한, 최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당 하루 최대 50개까지만 한정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대웅제약 "에너지셀" 와다다곰 콜라보

대웅제약이 인기 캐릭터를 적용한 한정판 상품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와다다곰'과 협업해 고급 비타민 '에너지셀 퍼펙트샷 봄 피크닉 콜라보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와다다곰'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곰 캐릭터 이모티콘이다. 대웅제약은 '지치지 말고 봄 피크닉 가자!'를 주제로 와다다곰이 그려진 피크닉 매트와 피크닉 가방을 선보인다.

피크닉 매트는 올리브영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셀 퍼펙트샷 이윤플러스 8개입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에너지셀 퍼펙트샷 10개입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피크닉 가방이 제공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원그룹, 자체 AI 플랫폼 도입... '데이터 기업' 새도약

GPT 4.0 기반 AI 플랫폼 개발 데이터 분석 등 생산성 향상 기대

동원그룹이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하고 업무 혁신에 나섰다 2일 밝혔다.

'동원GPT'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GPT 4.0'을 기반으로 하는 AI 플랫폼이다.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은 물론 인사, 총무 등 사내 정보 검색도 가능하다. 그룹 사내 인트라넷에 설치돼 내부 정보의 유출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그룹은 각 사업별 업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임직원 맞춤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동원GPT를 고도



동원그룹이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하고 업무 혁신에 나섰다. /동원그룹

화할 예정이다. 또한 ERP(전사적자원 관리), MES(생산관리시스템) 등 그룹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그룹이 보유한 고객 및 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신제품 전략 등을 도출하

고,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돕는 '경영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중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동원그룹은 동원GPT 도입에 앞서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남정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도 참여했고, GPT 활용법부터 현업 적용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직원들의 GPT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박종성 동원산업 DT본부장은 "오는 상반기까지 전체 사무직원의 약 25% 이상이 실습 과정을 이수해 연간 약 15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그룹의 사무 생산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한 해로 설정하고,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뚜기, 스콘 등 베이킹믹스 라인업 강화

홈베이킹 트렌드 맞춰 경쟁력 확보

오뚜기가 '홈베이킹'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베이킹 믹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1971년 '핫케이크가루'를 출시하며 베이킹 믹스 시장의 포문을 연 오뚜기는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는 '파운드케이크믹스', '스콘믹스'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뚜기는 별도의 제빵 도구 없이 손쉽게 파운드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케이크믹스' 2종을 선보였다. '얼그레이 파운드케이크믹스'는 얼그레이 향차분말을 첨가해 은은한 향을 살렸으며, '레몬 파운드케

이크믹스'는 레몬과 증분말로 새콤달콤한 맛을 더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콘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오뚜기가 커피·베이커리 브랜드 '프린츠'(Frietz)와 손잡고 선보인 '오뚜기 x 프린츠 스콘믹스'는 계란과 버터만 있으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이용해 전문점 못지않은 스콘을 완성할 수 있다.

우유나 물, 계란, 식용유만 있으면 부드러운 핫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오뚜기 '핫케이크믹스'도 있다. '핫케이크믹스' '췌코 핫케이크믹스' '쌀 핫케이크믹스' 3종이며, 해당 제품은 와플, 스콘, 계란빵 등으로 응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치료목적 사용 승인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강스텝바이오텍
"이달 중순경 환자투약 예정"

강스텝바이오텍은 2일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의약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사용승인은 기존 항체치료제 사용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신청했다. 의료 현장에서 퓨어시스템-에이디

주의 투약이 결정된 만큼 신약에 대한 필요성과 환자에 따라 약물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해당 병원이 3상 임상시험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퓨어시스템-에이디주의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신뢰와 기대감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에 대한 톱라인 데이터는 6월 내 확보될 예정이며, 연내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2025년 하반기 제품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강스텝바이오텍 관계자는 "퓨어시스템-에이디주의 치료목적 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4월 중순경 환자투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울 '어린속 한정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어린속" 이슬로 작가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이 작가 이슬로와 협업해 소비자들에게 클린뷰티 브랜드 가치를 강조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클린뷰티 브랜드 '한울'에서 이슬로 작가와 협업한 어린속 한정판 제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슬로 작가는 이러한 어린속의 힘에서 영감을 받아 작가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친근한 그림체로 '어린속 요정 쑥꼬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이번 한정판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이청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KB손해보험, 'K-BEST 차세대 시스템' 오픈

KB손해보험은 업계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K-BEST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EST 차세대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구축(KB-Build Efficient and Sustainable Technology)'과 'KB-est(최상급)'란 뜻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최상급 IT시스템이다. /KB손해보험



롯데호텔앤리조트,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후원

롯데호텔앤리조트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롯데호텔 서울 36층 버클리스 스위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오른쪽)김태홍 롯데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과 김천주 롯데의료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



박혁진 종근당 이사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종근당이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박혁진 종근당 이사보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종근당



인하대, 학교체육육성 보조금 2.5억 확보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와 '2024년도 학교체육육성 보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달받은 학교체육육성 보조금은 2억 5000만원으로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왼쪽부터)이규생 인천시체육회회장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토요타코리아

'바른 도그 어질리티' 참가자 모집

내달 18일 '메가주 펫산업 박람회'서 진행

토요타코리아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토요타코리아는 오는 26일까지 '토요타 바른 도그(DOG) 어질리티(Agility) 대회'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대회는 내달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메가주(MEGA ZOO) 펫산업 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참가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조현준 "아버지께서 키우신 효성, 더 단단하게 만들 것"

(효성그룹 회장)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

효성 본사에서 임직원 헌화·참배
"나라발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일 오전 8시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등 유족과 이흥구 명예장례위원장(전 국무총리), 이상운 장례위원장(부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 부회장, 효성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발인이 엄수됐다. 고인의 아들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아내 송광자 여사가 뒤를 따랐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발인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운구차는 오전 7시 10분경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영결식이 열리는 마포 효성 본사로 향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부터 시작해 김장환 목사(국동방송 이사장)의 추도사, 류진 한경협 회장의 조사, 이상운 부회장의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영결식 중 임직원이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다.

/효성그룹

이날 유족을 대표해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은 "아버지께서는 평생 효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셨다"라며 "자신보다는 회사를 우선하고, 회사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력,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 1등에 대한 무서울 만큼 강한 집념의 결정체"라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효성을 새벽을 밝히며 빛나는 새벽 같은 회사로 키우셨다"고 전했다.

조현준 회장은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가슴 깊

이 새겨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재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효성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회사로 만들 것"이라 다짐했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조사에서 "회장님의 식견과 통찰력, 솔선수범, 리더십, 집념이 효성의 탄탄한 성장 기반을 만들었고 수많은 글로벌 1위 제품을 탄생시켜 오늘날 효성이 있게 했다"라며 "남기신 업적을 기리고 전하며, 그토록 사랑하셨던 효성과 대한민국의 힘찬 성장을 반드시 일구어내겠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효성

그룹은 지난 1일까지 조문객을 받았다. 빈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계 인사들이 조문을 와 고인을 추모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이 기간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 정보화기 등 효성의 전 사업 부문에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그룹,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현대엘리베이터 40주년 비전포럼
현정은 회장, 매년 빠짐없이 참석

현대그룹이 2일 현대엘리베이터 창사 40주년을 기념해 '비전포럼'을 사옥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비전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정은 회장이 직접 제안해 지난 2005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우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의 진화'를 주제로 70분간 '웨бина'를 진행했다. 현 회장은 비전포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년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현 회장은 평소 "임직원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양과 자질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폭넓은 소양과 통합적 사고를 겸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 비전포럼 강연자는 120여명에 이른다. 계열사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추천



현대그룹은 2일 사옥 대강당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창사 40주년을 기념해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현대그룹

해 선정하고 포럼 주제는 강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경영환경은 물론 사회, 인문학,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비전포럼의 댓글로 제시된 거침없는 의견들이 '임직원 간', '세대 간'의 이해 증진과 긴요한 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그룹 평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비전포럼이 2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현정은 회장의 강력한 인재 육성 의지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향후 각 사 특성에 맞는 직무·특화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회장은 지난해 '차세대 여성 리더와의 미술전 관람', 올해 초 '그룹 신입사원 교육수료식 참석'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스킨십을 확대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김선욱 숭실대 교수

한국철학회 회장 취임

숭실대학교는 김선욱 철학과 교수가 지난 달 23일 전남대 김남주 기념홀에서 개최된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5대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취임사를 통해 김선욱 신임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철학이 감당해야 하는 시대 비판의 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AI 시대를 맞이한 철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선욱회장은 국제철학올림피아드 등의 행사 주관을 비롯해 올해 8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철학대회에 30여 명의 발표자를 이끌고 참여해K-철학의 확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ihj@

넥슨, 창립 30주년... '착한선물' 쏜다

첫 주자 '메이플스토리 소리나눔'

넥슨은 넥슨재단이 넥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는 넥슨

의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의미가 담긴 선물을 증정하며 사회 공헌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유저 대상 이벤트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진행된다.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의 첫

주자는 국내 청각장애 어린이·청소년 지원 사업인 '메이플스토리 소리나눔 프로젝트'다.

이번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는 넥슨 30주년을 메인 페이지 내 30주년 기프트샵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3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lna@

인사

- ◆ABL생명 ◇승진 △상품개발부장 홍승우 △상품혁신부장 윤주연
- ◆글로벌이코노믹 △국제부장(부국장) 고현석
- ◆OBS W △대표이사 김학균 △미디어본부장 기경호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김영민 △영경윤 △이상규 △정남희

우리마을 사람들 맞나?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수도권 변두리 시골마을에서 정치를 새롭게 배워간다. 그저 낯날이 정치가 일상이고 일상이 정치란 걸, 이곳 지금에서야 더욱 실감한다. 총선거를 열흘 가량 앞둔 지난 일요일 마을 대청소가 이뤄졌다. 지난 척사대회 이후 한달여 만이다. 마을사람 몇몇은 개울가나 논두렁 언저리에 걸쳐 있는 비닐, 패트병 등을 주웠다. 또 밧은 화관앞 대형 화분에 흙을 갈아주고 퇴비와 비료를 넣어 덧거름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임시총회도 열렸다. 안건은 마을재정, 한전지원금, 물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그다지 긴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청소를 겸해 모여보자는 생각이었던 듯, 이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싶어했다. 한전 지원금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것이고 물보조금은 상수원보호권역에 주는 비용이다. 결론은 지원금으로 유희농지에 환금작물을 심어 수익을 더 올려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마을 재정 건은 어떤 이가 급전이 필요해 대출 담보로 잡혀던 걸 해소했

다는 내용이었다. 의례적인 화합이 이뤄지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정치얘기가 이뤄졌다. 삼삼오오 잡담과 여흥이 펼쳐졌을 때다. 단연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 젊은 층은 대체로 여당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노년층은 국정 안정을 선택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예전의 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것만해도 여기서는 세상이 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부는 화를 내며 언쟁하듯 성토했고 싸워서 무엇하냐며 중재하는 이도 있었다.

그중에서 90대 한 노인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한강백사장 유세 등의 기억들을 소환하며 전설같은 얘기를 펼쳐놓기도 했다. 그리고는 요즘 그때 가슴 뛰던 연설을 다시 보게 된다고 회상했다. 아마도 신생 정당에 대한 말인 듯 싶다. 여지껏 그의 정치색을 알 지는 못했다. 한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살아서 마지막 투표가 될 거라는 말에는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 화장장 설치에 대한 건은 결론이 유보됐다. 최근 어떤 사회단체에 선거 우리 마을 뒷산에 화장장을 건립한다는 의견서를 시청에 접수, 마을에 의견을 물어왔다. 어떤 이는 오늘날 화장장의

모습을 설명하며 그다지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무작정 반대할 것만도 아니라고 말했다. 젊은 이장은 마을 노인들 앞에서 화장장 얘기를 기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도 어느 노인도 대화를 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들 적당히 언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 맞나' 싶었다. 그래서 이날 풍경을 '적당히'라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 결국 화장장 설치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다시 논의하자고 유보하는 결로 얘기를 마치는 걸 보며, 그 자연스런 분위기가 좋았다. 한전지원금 등 마을 안건부터 선거, 화장장 등의 문제를 이처럼 실감나게 대화하면서도 주민들이 갑자기 정치 수준이 몇단계는 높아진 것 같았다. 도대체 이게 예전의 이웃들이 맞나.

마을사람들의 정치력이랄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그래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순을 피워내는 세상 이치가 새삼스럽다고 할까.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SNS에서 세상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그저 모든 정치를 새로 배우고 느낀 하루, 달라질 세상이 기대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결혼할 때 3억을 쥐야하는 부모들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지난해 결혼 또는 출산시 1억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를 실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됐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혼인할 때, 1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부모와 그럴 수 없는 부모가 갈릴 것이라고 말이다. 또 다른 형태의 채무 부채가 생겼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혼인증여공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소수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에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 결국 해당 제도는 상위계층을 위한 일명 '갈라치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되는 의문은 근거가 부족한 '부자감세'는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기업의 안정·영속성과 관련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온 상속세 저감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될 시점에 시장은 상속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의 다양한 기대감을 빗나간 세부안만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높은 상속세로 꼽기도 한다. 주요 7개국(G7) 등 다수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상속세율을 낮추고

있다. 반면,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인상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할증 과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기도 해 세계 1위 수준으로 치솟는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의 성장과 부의 국내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개한 '4·10 총선 조세 제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2.4%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총선은 게임이 아닐 뿐더러, 선거가 끝난다고 '대한민국 게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소수의 어떤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나라 경제를 위한 세법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재고되길 바란다.

/gothe@

오늘의 운세 4월 3일 (음 2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안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48년생** 돌이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60년생**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72년생** 기대가 크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84년생** 투자의 디지털화에도 수백 가지가 넘으니 공부해야.
- 37년생** 세월만은 변함이 없다. **49년생** 선행은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61년생**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둘 것. **73년생** 바쁜 날이지만 내일을 위한 성찰은 있어야 할 것. **85년생** 차 구매는 다음에.
- 38년생** 겨울이 지나가니 봄이 멀지 않다. **5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62년생** 새로운 계약이 오후에 있으니 의지로 성사. **74년생** 자기중심으로부터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86년생** 생활의 편리한 과학으로 기쁨 놀라다.
- 39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하니 새롭게 집 안 청소 시작. **51년생** 피곤한 날이니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63년생** 아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니 주의. **75년생** 우물에서 승봉 찾지 말고 차분한 행동으로. **87년생** 오후 7시부터 운전 주의.
- 40년생** 세상만사 새움지마이니 낙담하지 마라. **5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64년생**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76년생** 자연계에는 하루가 있고 춘하추동의 계절이 있다. **88년생** 지갑에 소액현금이라도 지니고 다녀보라.
- 41년생** 오랜 친구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아량을. **53년생** 내일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65년생**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하루. **77년생** 앞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89년생** 주력으로 이사를 할까 계획 중.
- 42년생** 모임에서 한번은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4년생** 새색을 튀우기 위해서 풀잎들이 말라죽는다. **66년생** 작은 먼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78년생** 시험공부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필요. **90년생**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서 재물이 안정.
- 43년생** 재개발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5년생** 사람은 각각 자기 운명을 만든다. **67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성날. **79년생** 기말수 있는 그들이 그라운 날임. **91년생** 오전 일찍 신문은 통해 소식을 얻는다.
- 44년생** 슬픈 지난일은 다 뒤로하고 새 출발. **56년생** 어제 봤던 그 사람이 귀인인가 싶은 생각. **68년생** 아는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80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92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 45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다. **5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투자 욕심을 버려라. **69년생** 조직에서 동료와의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81년생** 지혜가 향상되니 복이 온다. **93년생** 취직이 되어 감사할 날.
- 46년생** 화목함에서 아름다운 미래가 앞에서 펼쳐진다. **58년생**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 **70년생** 명예는 높이며 실리도 만족. **82년생** 애써서 보살필 자신이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야 할 것. **94년생** 부모님께 기쁜 일이 생기니 마음이 흡족.
- 47년생** 노후에 들어간 직장에서도 물갈이가 시작. **59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웃을 준비해야. **71년생** 바람이 분다고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83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기니 손실이다. **95년생** 분배를 잘해야 다툼이 일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미래 내다보기

인심人心은 조석朝夕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은 아침에 한 결심決心이 저녁이 되면 바뀌게 되는데 환한 얼굴의 남자가 상담실로 들어섰다. 대기업 보험사 자금운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다. 그가 처음에 상담을 왔던 건 초년 시절 이직 고민 때문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증권사에 배치를 받았다. 종합상사에서 무역업무를 하고 싶었던 그는 일단 배치받은 증권사에서 근무했지만 회사를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당시 그의 사주에 이직 운이라고 할 만한 형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 움직이면 오히려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주에는 정재가 있었는데 이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향을 보여준다. 성실한 스타일이면서 금전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신중함이 있다. 이직을 상담하는 그에게 회사를 옮기지 말라고 만류했다. 당시에는 경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다. 미래는 제조업보다 금융의 시대가 될 게 분명했다. 금융이 경제의 중심이 될 테니 떠날 이유가 없다고 설득했다.

돈을 투자하고 수익률 싸움을 벌이는 금융시장에서 성실성을 보여주고 반듯한 성품으로 고객을 대하면 기대 이상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예측했다. 그는 이직하지 않았고 필자 예상대로 이십여년이 지난 뒤 임원 자리에 올랐다. 금융 전문가 또는 자금운용 전문가로 업계에서 명성이 드높아졌다. 얼마 전에는 보험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최고 대우를 받으며 이직했다. 그가 처음 취직했을 때 원하는 곳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옮겼다면 지금 같은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원했던 종합상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위상이 낮아졌다. 미래 운세 흐름이 사주와 종합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인 사례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1	4			8	6
8			6	5		
						9
	2		5	8	4	
9	7		3	5	1	6
			2	9	8	5
1						
			4	1		8
3	9			7		2
						5

9	4					7	2
1	5			3			9
			9		4		8
		2		4		9	
	8		1		3		6
		6		7		5	
4			5		6		
	2			5			4
7	3					6	9

9	1	2	9	2	8	7	6	8
8	8	9	6	1	7	2	9	2
7	2	9	8	2	9	6	8	1
2	9	8	8	6	2	9	1	7
2	9	7	1	9	8	8	2	6
1	6	2	7	8	9	8	2	9
6	7	8	2	8	1	9	9	2
8	2	1	9	9	6	2	7	8
9	8	6	2	7	2	1	8	9

6	1	9	8	2	7	9	8	2
2	7	8	1	9	8	6	2	9
8	2	2	9	8	9	1	6	7
1	8	9	6	8	2	9	7	8
7	9	2	8	6	1	2	8	9
9	8	6	2	7	9	2	1	8
8	9	1	7	9	6	8	2	2
9	6	7	2	8	1	8	9	1
2	2	8	9	1	8	7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장 없는 중기부 산하기관들

길어진 공백기에 총선만 ‘오매불망’

옴부즈만, 창진원, 벤처투자 등 대표·위원장·감사 자리 비어있어 총선 이후 올 기관장 ‘예의주시’ 관련 업무 정통한 실력자 바라

수장들이 떠나 자리가 비어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수도북한가운데 이들 기관이 4월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전임 기관장들이 임기를 한참 남겨놓고 그만뒀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총선이나 끝나야 고배를 마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빈 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장 자리엔 여당 출신 정치인이 오거나, 아니면 비정치인이라도 현 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쓴 개국공신들로 채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원장, 한국벤처투자 대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공석이다. 한국벤처투자와 공영홍수평은 감사 자리도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부문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다. 전임 박주봉 옴부즈만이 5년 6개월간 옴부즈만 활동을 하다 퇴임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전임 이영 장관 시절 옴부즈만 자리를 놓고 공모를 진행, 후보까지 3배수로 추렸지만 오영주 장관 취임

후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일단 옴부즈만 없이 3월 말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현장 규제 애로를 듣는 ‘S.O.S Talk’를 올해 17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네 차례의 소상공인 간담회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대주중공업 회장인 박주봉 전 옴부즈만은 지난달부터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스타트업 지원, 창업 촉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창업진흥원도 지난 2월 초부터 원장 자리가 비었다.

다만 창진원은 업무 성격이나 기존 기관장들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정치인 출신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기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도 현재 공석이다. 오동윤 전 원장은 당초 5월까지 임기였지만 앞서 2월 말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고 대학교로 돌아갔다. 오 전 원장은 동아대 경제학과에서 이번 학기부터 무역이론, 기업정책, 경제발전 등을 가르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는 유용환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한 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등을 두루 거친 반도체 전문가인 유 전 대표는 19대 대선 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20대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각각 몸담은 특이한 이력을 보유했었다. 3년 임기인 한국벤처투자

대표 자리를 1년 2개월 밖에 채우질 못했다. 한국벤처투자는 감사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중진공이 현재 공모하고 있는 글로벌 상임이사 자리는 선례를 볼 때 정치권에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A이사 역시 정치권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오영교 위원장이 지난 3월 4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새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임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무총리 출신인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동반위는 이후 주로 장관급이 수장을 맡았다. 6번째 위원장인 오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중소기업계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곳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정권 출신 인물들이 서서히 빠져 총선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모든 기관들이 총선 이후에 올 기관장들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면서 “힘이 썩어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력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기관의 속내다. 자칫 색깔이 맞지 않는 애매한 인물이나 전문성도 없이 (정치권)출만 믿고 와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치거나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인사 등과 관련해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 등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렌탈료 반값 등 역대급 혜택

5월31일까지 ‘코웨이페스타’ 진행

코웨이가 5월31일까지 역대급 혜택을 담은 ‘코웨이페스타’를 진행한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페스타’는 코웨이 매장, 코웨이닷컴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코웨이는 행사 기간 동안 코웨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렌탈료 할인, 경품 증정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에서는 코웨이 최초로 주요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의 렌탈료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이론 정수기2, 아이론 얼음정수기, 비렉스 안마베드 등 코웨이 베스트셀러 17개 제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렌



탈 구매할 수 있다.

이사와 결혼 시즌에 맞춰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특별 패키지 기획전도 마련했다.

아이론 정수기2와 프라임 비데 또는 아이론 얼음정수기와 싱글과워 공기청정기 등 행사 제품을 세트 렌탈하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렌탈료의 15%를 추가로 할인한다. /김승호 기자



FTA 발효 20주년 기념 ‘FTA 2.0 세미나’

고광호(앞줄 가운데) 관세청장과 국외 59개국 FTA 담당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 ‘FTA 2.0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SK매직, 초소형 직수 정수기 1.5만대 판매

출시 한 달 만에 성과

SK매직이 지난 2월 출시한 신제품 ‘초소형 직수 정수기’(사진)가 한달 만에 1만5000대가 넘게 팔리며 인기다.

2일 SK매직에 따르면 초소형 직수 정수기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SK매직은 주문이 기대 이상 폭증하자 경기 화성공장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밀려드는 고객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SK매직은 초소형 직수 정수기의 흥



행 요인을 고객 니즈를 반영해 기존 직수 정수기 대비 60% 로 크기를 줄인 초소형 사이즈로 꼽았다. 한 뼘 크기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슬림해 좁게 느껴지는 주방 공간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실제 출시 이후, 신규 고객뿐 아니라 제품 부피에 부담을 느꼈던 기존 정수기 사용자의 교체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33%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中企 자금조달 애로 집중지원”

‘中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납품 계약 후 겪는 문제 해소 올해 1000억 규모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새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은 생산 리드타임(제품 수주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해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

론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조기업은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주기업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결제조건, 자금사정을 고려해 수·발주기업 합의 하에 30~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생산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췄으며, 납품 후에는 발주기업이 상환 의무를 지므로 수주기업은 자금 운용이 자유롭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원절차를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금 신청 후 대출까지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이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수월하게 확보해 원활한 생산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 단위 공급망 강화와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러,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이나·美 연관성 조사 /사진 뉴스스
- ▲리비아 해안에서 1주간 불법이민 480명 구조

- ▲‘1900만원 롤렉스 시계’ 스캔들…페루 대통령, 검찰 소환
- ▲한미일 북핵대표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추가 도발 주시”



- ▲美·日, 정상회담 성명에 ‘반도체 조달 협력’ 명시키로…“中 의존도 완화”
- ▲‘190만명 팔로워’ 유튜버, 베네수엘라 모국서 테러 혐의로 체포 /사진 뉴스스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영양성분 그대로 담아
니



Life

CJ그룹
'더 CJ컵' 준비 만전
K-푸드 세계화
L2



왕십리 입체도시, 북한산 천문대... 강북 '전성시대' 열린다

성산로·왕십리·북한산·중랑천·노해로 강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대상지 선정 일자리·문화공간 조성해 균형발전

서울시는 강북권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만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3만㎡)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강북구, 1만5635㎡)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만6000㎡)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노원구 1만5750㎡) 등 5건이다.



서울시가 강북권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계획안. /서울시

첫 번째 선정 사업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이다.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이 위치해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에 따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지상 공간이 단절

되어 있고 상권도 침체해 지역 활력이 저하된 상태.

시는 이 성산로 일대를 지하와 지상을 입체 복합개발하는 형태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 등은 연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

4개 노선이 지나는 '성동구 왕십리의 입체 도시 조성'에는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상부 고산자로 차선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든다. 차량 통행을 막은 성동지하차도를 상업·업무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서, 구청 등도 한 곳으로 이전해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북구 북한산 중턱 시민천문대 건립'을 통해서도 동북권 문화·관광 거점이자 주야간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5월 의무경찰대 이전 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변에 인공조명이 적고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이 없어 서울 내에서는 천문

대를 건립하기 좋은 위치다.

하천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지역단절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중랑천변 동대문구 휘경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된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노해로를 총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여 보행 구간을 확대해 열린 문화광장으로 리노베이션한다. 노원역 주변은 금융권, 쇼핑 등 상권이 밀집돼 있으나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노해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5개 신속추진사업은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이 도출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단기 집중교육 육성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재양성 참여대학 32개교 공모 선정 대학에 5년간 연평균 15억 지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기업과 협업체단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체단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

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산업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원 대학도 32개교 추가 선정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를 최소 1개 이상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업과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대학 인력의 자원을 활용해 집중 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며 각 첨단산업에 진출할 인재를 100~300명 규모로 양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과 긴밀히 소통·협업할 수 있도록 다수 기업을 회원

사로 보유한 산업별 협회·단체를 협업 기관으로 지정해 기업 섭외, 몰입형 교육과정 위탁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여름 계절학기부터 대학에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학교 학사일정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서울교육청, '우리학교 학사일정' QR코드 스캔해 간편 확인 가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주요 학사일정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우리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개발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학사일정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학사일정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우리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통해서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 방학일, 개학일, 시험일 등 주요 학사일정 데이터를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를 선택한 뒤 학교급과 학교를 선택하면 이번달 학사일정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학사일정 보기'를 선택하면 2024학년도 주요 학사일정을 모두 볼 수 있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선택해 한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우리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서울교육시각화시스템에 접속해 '우리학교 학사일정'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시티투어 버스 타고 '파주 일주' 떠나요"

파주시, 요일별 시티투어버스 운영

파주시는 대표 관광지를 권역별로 연계한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2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티투어'는 파주의 역사·문화·자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하며, 요일별 노선을

모두 이용하면 파주일주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로 운행되는 정기코스와 주말에 1박 2일로 운행되는 핵심관광코스가 운행된다. 모든 노선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재미있는 해설로 파주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정기코스의 경우 관광객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요일별 특색을 뒀다. 2023년 코스공모전을 통해 MZ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노선으로 금요일 코스를 구성했으며, 화요일에는 울곡수목원의 대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공간인 6.25납북자 기념관을 토요일 코스에 새롭게 추가해 평화관광의 의미를 더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4월 3일 (수) 음력 : 2월 25일

수도권 날씨 12~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5 | 해질 / 18:57

연천 6/22, 동두천 8/22, 가평 6/22, 파주 7/21, 서울 12/20, 양평 10/19, 인천 11/19, 수원 13/20, 용인 13/20, 평택 12/17, 백령도 9/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쌍둥이 감독 모두 이긴다"·"시원하게 도전"…프로농구 PO 감독 출사표
▲ "우승 후보" KT가 어찌다…민었던 선발 무너지고 최하위 추락 /사진 뉴시스

▲ 손흥민, 득점 공동 5위 보연과 맞대결…웨스트햄전서 연속골 도전
▲ '4개월 만에 필드골' 조규성, 11호골로 리그 득점 선두



▲ 김효주, LPGA 포드 챔피언십 3R 1위…올해 첫 우승 보인다 /사진 뉴시스
▲ KPGA, 창립 46년 만에 첫 사옥 마련…"女골프 역사 써 내려가길"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AMSUNG

세상에 없던 세라이포

가져오, 세상에 없던 시간

세탁시간을 잊어보세요
청소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유통기한도 전력효율도 모두
모르고 살아도 좋아요

삼성의 시가 힘을 모으더니

집을 신경쓰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